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 공군

## R28: 리턴투베이스

8월, 대한민국 하늘이 뒤집어진다!



- 06 경청노트 ① 내 인생관을 바꿔 놓은 공군
- 08 경청노트 ② FX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10 Pioneers up above 데이비드 뎀틀라
- 12 World-Wide Vision Pilots and Warriors
- 14 Global AF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최후
- 18 Leadership+ 자신의 가치를 100배 올리는 전략



- 20 기획특집 공군, 영화를 만나다
- 32 Photo Sketch Simple is the Strongest!
- 36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 38 AIR FORCE MONTHLY 2012. 07. NEWS
- 40 생각하는 그림 바다를 감동시킨 혁신

### COVER STORY



하늘에 전부를 건, 그들이 찾아온다!  
 표지(앞)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 포스터  
 표지(뒤) 이병 조기봉 |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 CULTURE 36.5

## 44



- 44 Hollywood English 메리다와 마법의 숲
- 46 인생은 아름다워 권력을 탐한 맥베스의 불면의 권좌...
- 48 Art in Everyday 분수가 필요해
- 50 Air-Supply 웃기는 노래들이 세상을 휩쓴다.
- 52 Preview 7월의 문화행사

# OPINION

## 5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5월호를 읽고서
- 54 독자기고 공군을 더 깊게 품을 수 있었던 기회  
자랑스럽고 멋진 아버가 되게 해준 공군에게...
- 56 책마를 놀기,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잡습니다. 2012년 6월호(통권 408호) 34페이지 사진 캡션 중 'Para-Suit'은 'Parachute'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 MONTHLY MAGAZINE VOL. 409. 2012. 07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 이번 호 (Health Diary)는 한 회 쉽니다.

발행일자 2012년 7월 2일(통권 제409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인생관을 바꿔 놓은 공군  
FX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경청노트

데이비드 텡틀라  
\* Pioneers up above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최후  
\* Global AF

Pilots and Warriors  
\* World-Wide Vision

자신의 가치를 100배 올리는 전략  
\* Leadership+

# Global & Insight

# 내 인생관을 바꿔 놓은 공군

몇 년 전 KBS 방송작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KBS 작가입니다. 윤 선생님.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가보 1호가 뭐지요? 가장 아끼는 거요." 그때 나는 주저 없이 이렇게 답했다. "공군 군복 한 벌입니다!" "예? 왜 그게 가보 1호지요?"

내 옷장에는 공군 군복 한 벌이 잘 모셔져 있다. 내가 군 생활 중에 입고 있던 공군장교 정복 한 벌이다. 중위 계급장도 붙어 있고 명찰도 잘 붙어 있다. 아끼는 물건이 이것저것 있지만 내가 가보 1호로 공군 정복 한 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이 공군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군생활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오늘날의 내 인생을 있게 한 배움의 장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1975년 5월 입대해 대전에 있던 교육사령부(現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5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다. 내 첫 번째 배속지는 김해비행단이었다. 그때만 해도 신설부대라서 여름에 비라도 쏟아지면 활주로 옆 응덩이에 붓어, 미꾸라지가 펄떡거리던 곳이었다. 구포에 하숙집을 정하고 옛날 구포대교를 지나며 통근버스로 출퇴근했다. 당시에는 공군장교 복무기간은 만 4년이어서 근무기간 긴 편에 속했다. 그래도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 시간만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낮에는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 젊은 청년장교에게는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약 10개월간 기지전대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비행단장이 부임했다. 어느 날 인사처장이 호출해서 만났더니 나보고 신임 비행단장의 부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신임 비행단장은 부관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분이라서 새로 선발해야 하는데 선발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라는 거였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부관을 하면 우선 부대 내 숙소로 들어와야 되고, 365일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관만은 못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행단장을 면담하였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부관생활을 하게 됐다. 당시 신임 비행단장은 공사2기생인 김동호 장군님이었다. 그야말로 지·덕·체를 겸비한 분이셨다.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에 능통했다. 만능 스포츠맨이셔서 검도, 유도 실력도 대단했고, 수준급의 서예 실력도 갖춘 분이셨다. 게다가 영국무관을 3년 하셨기 때문인지 의전에도 정통했고, 독서량이 많아 아주 지적인 분이셨다. 첫 번째 면담에서 비행단장이 먼저 자기소개부터 상세히 하시더니 부관이란 직책의 중요성, 장단점, 애로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부관근무는 힘든

점도 많지만 무엇보다 배울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면 큰 인생공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이끌려 부관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때 내 계급은 아직 소위였다. 소위가 장군인 비행단장 방에 호출되어 갔으니, 무조건 부관을 하라는 지시가 나올 줄 알았다. 솔직히 나는 정말 못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려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김 장군님의 마음을 여는 리더십에 이끌린 것이다.

그 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다. 나는 김해비행단을 거쳐 한미연합사, 공군본부 감찰감실, 공군본부 작전참모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김 장군님을 주로 모셨고, 때로는 잠시 떨어져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인생관도 바뀌었고, 생활방식도 바뀌었고, 결국 운명도 바뀌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첫째, 존경받고 사는 것보다 존경할 대상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로부터 존중받고 나아가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존경할 대상이 있으면 더 큰 행



김동호 장군님과 함께

복감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가슴이 뛰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가슴이 뛰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셈이다. 나는 김 장군님을 존경하면서 행복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내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을 찾으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셨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교훈이다.

둘째, 최선을 다하고, 최고 수준을 추구한다. 소위, 중위의 눈과 장군의 눈은 다르다. 안목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부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비행단장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사소한 실수도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반면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매사 최선을 다하고 최고 수준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은 바로 공군에서 배운 것이다.

셋째, 시테크의 원리를 배웠다. 우리나라 경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시테크' 책은 내가 1992년에 쓴 것이다. 시테크라는 용어자체를 내가 만든 것이고, 그 후에 수많은 '테크'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부관근무를 잘하려면 스케줄링, 스피드, 타이밍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부관은 모든 부대행사에 앞서 미리 움직이고 준비완료를 해야 한다. 행사 후에는 뒷정리하고 평가까지 해야 한다. 나는 공군에서 이걸 제대로 배웠고, 제대 후 사회에 나와서 경영 컨설팅을 할 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마침내는 정보화사회현상과 접목시켜 '시테크' 이론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시테크는 이미 공군근무 중에 기본원리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1979년 9월 30일 대방동에 있던 공군본부에서 제대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는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다가 업무를 마쳤다. 단기 장교 중에 초과 근무한 사람은 아직 사례가 없다고 하니, 이것도 기록이라면 기록이다. 그 당시 4년이나 근무하다 보니, 제대 말에는 보통 한두 달씩 근무 열의를 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다. 머릿도 기르고, 사회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그때 나는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실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대 한 달 전에도 부대이발소에 가서 표준형으로 이발을 하고 정상근무를 했다. 4년 5개월을 보낸 군 생활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안업무처리를 열심히 하고, 후임부관교육을 하면서 근무하다보니 마지막 날까지 정말 바쁘게 보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1979년 9월 30일 오후, 대방동 언덕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오늘까지는 군인이고 내일부터는 민간인이구나!' 흔히 제대할 때 드는 기분을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 내 경우에는 시원이 10%고 섭섭이 90%쯤 되었던 것 같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버릇은 종합무역상사를 퇴직할 때나, 방송MC를 그만둘 때나, 대학총장을 퇴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끝마무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것은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고, 이러한 교훈 또한 공군에서 배웠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나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취임식 날 내 사무실 책상 앞에 사진 액자 하나를 걸어두었다. 김동호 장군님과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교육원 간부들끼리 이분이 누구냐고 한바탕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몇 개월이 지난 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분은 김동호 장군님이라고 공군사관학교 2기생이고, 지·덕·체를 겸비한 진정한 리더, 내 인생을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스승이다. KBS 방송작가에게 우리 집 가보 1호를 왜 공군장교 정복 한 벌이라고 말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그 방송작가의 말이었다. "그런 거 말고요, 골동품이나 뭐 좀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진품명품팀인데요." 야! 그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나에게서는 공군 DNA를 이어주는 공군 군복 한 벌이 진품명품이고, 가장 귀한 자산인 것을. **AF**



# FX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사업이라는 공군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을 놓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려 8조 3천억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문제는 단순히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논란을 종합해보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종평가 방법의 문제와 정권말기에 급하게 줄속 추진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부실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FX사업이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갈 수 있을까? 반드시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전투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최상위의 꼭지점에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이며 특히 FX사업을 통해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단순히 공군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히 북한의 공군력을 제압하는 것만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지해상군의 전략표적을 정밀 타격하여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무력화하는 핵심 전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FX의 기종이 적기에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군의 전투기 사정이다.** 1, 2차 FX사업을 통해 60대의 최신예 F-15K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F-4, F-5 전투기들은 이미 설계수명을 한참 넘어 30~40년 이상 운용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후된 기종들인데 80년대 초 면허생산한 ‘제공호’를 제외하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도태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현 전투기 확보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전투기 대수 대비 약 100여 대가 부족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공백이 예상되어 전투기 확보가 절실하다.

**두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반적인 작전통제를 한국 합참이 행사하는 상황에서 전쟁승리를 위한 핵심능력인 공군력의 부족은 항공작전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참주도의 전쟁수행이라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핵심시설을 포함한 장사정보 등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능력 보유이다.** 북한은 스스로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명시할 정도로 핵무기 보유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수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략표적은 주로 고밀도 위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사정보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산 후·측면에 강도화하여 위치함에 따라 은밀침투 및 정밀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 초기에 격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공군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몇몇 공군의 지인들을 통해 분위기를 들어보았다. 한마디로 “속이 타고 애가 탄다”는 것이다. FX사업은 1988년에 최초 소요가



## FX 3차사업 후보 기종 제원 및 성능 비교

### F-35라이트닝 II

길이(m)	15.67
최고속도	마하 1.6
최대반경(km)	1,093
최대무장 탑재량(kg)	8,165
엔진 수(개)	1
스텔스 성능	높음
제조회사	미국 록히드마틴

### 유로파이터 타이푼

길이(m)	15.96
최고속도	마하 2
최대반경(km)	1,390
최대무장 탑재량(kg)	7,500
엔진 수(개)	2
스텔스 성능	제한적
제조회사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 F-15SE

길이(m)	19.45
최고속도	마하 2.5
최대반경(km)	1,480
최대무장 탑재량(kg)	1만 3,380
엔진 수(개)	2
스텔스 성능	제한적
제조회사	미국 보잉



※ 작전반경은 스텔스 성능을 위해 내부 연료만 갖춘 경우  
최대무장 탑재량은 추가로 외부연료까지 장착한 경우

결정된 이래 무려 9번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2007년 7월에 이번에 추진하는 FX사업의 소요가 결정되어 작년에 정말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공군의 입장은 분명했다. “공군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국익에 부합하고, 작전요구성능(ROC)만 충족한다면 어떤 기종이든지 좋으니 제때에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으로서 “사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라는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대전의 핵심은 공군력이며 그러한 공군의 전투기가 부족하면 우리 군의 군사력 전체가 약화되어 핵은 커녕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도 대응할 수 없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하늘이 뚫어지게 되면 땅과 바다도 온전치 못하고 대한민국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AF**

# 데이비드 뎀톨라 *David A. Dept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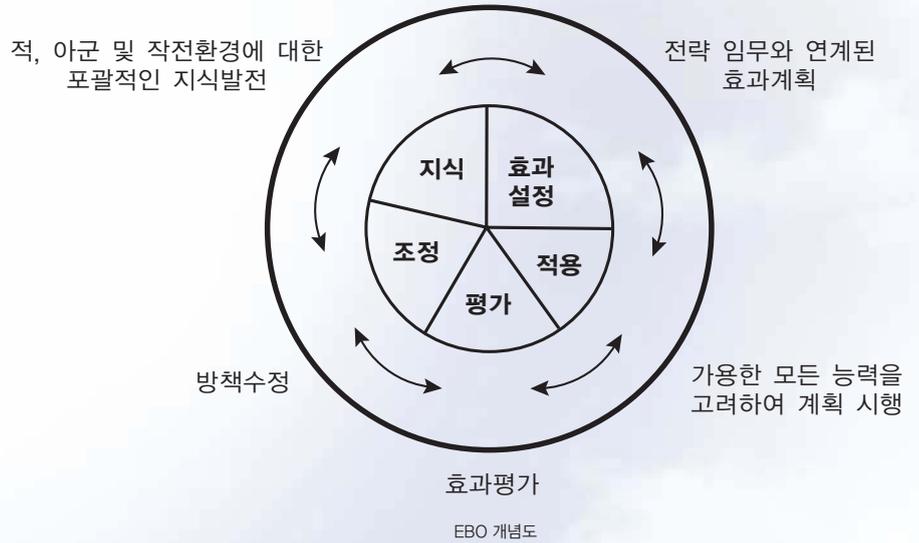
효과기반작전(EBO) 개념을 창시한 21세기 현대군사전략사상가



“효과기반작전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군사력의 운용방식 및 수단을 결정하는 일련의 군사적 실행과정이다.”

데이비드 뎀톨라 장군은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톤에서 태어났다. 버지니아대학 항공 공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1974년에 ROTC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후 학업을 지속해 1976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F-15 조종사가 된 그는 3,000시간 이상을 비행했고, 그중 400시간은 전투출격이었다. 그는 비행대대, 비행단, 사령부, 공군 본부 및 전투사령부의 작전, 기획, 합동전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방 발전 및 전쟁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1979년부터 82년도까지 일본 가데나 기지에서 근무했고, 이어 공군무기체계학교도 졸업했다. 1988년 1월 공군대학을 졸업한 그는 공군본부 전쟁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존 와든 대령과 인연을 맺었다.

뎀톨라 장군은 최근 주요 전투작전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걸프전에서는 '사막의 폭풍' 작전 기획주무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98~99년도에는 터키 주둔 연합합동기동군사령관으로서 이라크의 비행금지임무를 감독하면서 82회나 전투 출격했다. 이어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남극의 군사지원군사령관을 역임한 뒤, 2001년에는 아프간전 항공작전본부장으로서 다국적군의 항공작전을 총괄 지휘통제했다. 2002~03년도에는 공군전투사령부 기획참모부장, 태평양공군작전참모부장/전쟁연구본부장/부사령관을, 200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쓰나미사태 지원을 위한 합동공군사령관을 역임했다. 2006년도에는 공군본부 초대 정보감시정찰참모본부장을 역임한 뒤, 2010년 10월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그 밖에 뎀틀라 장군은 1994년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관하는 임무역할위원회(The Commission on Roles and Missions)와 1997년 국방기획패널(The National Defense Panel)에 참여해 미국의 미래 국방기획에도 깊이 있게 관여한 경력이 있다.

뎀틀라 장군은 저술활동에도 진력해 ‘효과기반작전 : 전쟁양상을 변혁시키다’, ‘병행전’, ‘21세기 합동공지작전의 전환’, ‘직접공격 : 지상제압작전교리의 향상’, ‘미래를 변화시킨 항공우주력’, ‘전쟁양상 변화와 ISR작전’ 등 항공전역과 미래전에 관한 수십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뎀틀라 전략사상의 핵심은 효과기반작전(EBO : Effects-Based Operations)과 신속결전개념(RDO : Rapid Decisive Operations)으로 대표된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전쟁양상은 적을 대량 파괴해 초토화시켜 승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르다. 뎀틀라는 적 지휘부 등의 전략중심을 정밀공격해 전쟁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기반작전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에서 이제는 신속하게 목표를 결정적으로 공략하는 신속결전개념 또한 강조했다. 즉, 다수의 군사표적들을 거의 동시에 정밀 공격하는 병행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효과기반작전 및 신속결전개념은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교리 및 군사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대규모 군사력을 지양하는 대신, 첨단 소수정예전력에 의한 군사표적의 효과적인 제거를 추구하게 된다.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에서 선보였듯이, 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들이 발진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군사표적들을 직접 공격하고 복귀하는 전쟁방식이다. 과거 같으면 전장에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시켜 물리적 군사력으로 적의 근거지들을 초토화시켰지만, 이제는 고도의 정보타격력(ISR-PGM)으로 적의 심장에 은탄(Silver Bullet)을 바로 쏘는다는 것이다. 적장과 우리의 전사 사이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보고와 행동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같은 효과기반작전 및 신속결전개념을 바탕으로 뎀틀라 장군은 대표적인 21세기 현대군사전략사상가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수차례 방문해 국방부, 합참, 공군대학 및 민간 유수대학에서 그의 참전경험과 현대 항공 우주전략에 관한 강연을 한 적도 있다.

뎀틀라 장군은 현재 국방기획, 전략, 정보감시정찰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뎀틀라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ISR 분야 미래 대안으로 개발 중에 있는 감시정찰비행선을 제작하는 Mav6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다. **AF**



뎀틀라 장군의 얘기, F-15C

# Pilots and Warriors

Air Force Weapons School gives pilots advanced training for combat missions!

네바다 주, Nellis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공군 무기학교(Air Force Weapons School)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22주 동안 고난이도의 전술 및 무장사용법을 가르치는 학교다. 조종사들은 이 학교에서 평균 400시간의 대학원 과정수업과 더불어 고도의 전투기동훈련에 참여한다. 미 공군 무기학교의 설립은 1949년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ir Force Gunner School”이란 이름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참전 조종사들에게 실전적 훈련을 제공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1954년, 현재 학교 명칭인 “Air Force Weapons School”로 개정된다. **AF**



- ① F-15C Strike Eagle, F-16 Fighting Falcon이 미 공군 무기학교의 학생들과 모의 공중전을 펼친 후,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 ② 제65공격기대대의 F-15D Eagle 조종사인 데이비드 빈센트 대위가 미 공군 무기학교에서 비행을 앞둔 조종사들에게 가상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 ③ 미 공군 무기학교의 훈련비행 지원을 위해, 제65공격기대대의 조종사가 자신의 F-15D Eagle의 계기판(instrument panel)을 체크하는 모습
- ④ 유리자 카스틸로-아과이어 대위와 데이비드 야노시 하사가 전투탐색구조 훈련 중 스모크를 점화하고 있다.
- ⑤ 제963공구항공통제대대의 카일 본 하사가 전투탐색구조 훈련 중, 격추된 조종사를 탐색하기 위해 Combat Survivor Evader Locator Radio Training(전투생존 회피탐색 라디오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 ⑥ 제1전투영상촬영대대의 공중 촬영기사인 매튜 브랜치 일병이, 제65공격기대대의 F-15D Eagle을 타고 넬리스 공군기지 위로 비행하는 모습
- ⑦ 니콜라스 브룩스 중사가 HH-60 Pave Hawk로 올라가고 있는 유리자 카스틸로-아과이어 대위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1



## 이라크 자유작전 ③

#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최후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철권통치를 보위했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한때 중동 최고의 전투부대로 명성을 떨쳤다.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다국적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압도적인 다국적군의 항공력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압도했고, 후퇴를 거듭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걸프전 종전 후,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다시 한 번 다국적군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로 부상하는데……





01 /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사담 후세인의 개인 경호를 위한 부대로 탄생되었다. 사진 출처, 이라크 공보부

## 이라크 판 나치스 친위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사담 후세인의 개인 경호를 위한 부대로 탄생됐다. 쿠데타와 암살이 빈번했던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후세인은 자신의 고향인 티크리트 지방 출신들로 장병들을 선발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사담 후세인의 경호부대에서 야전작전능력을 가진 부대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란-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대폭 개편해, 4개 기갑여단으로 증강시켰다. 이때부터 이란과의 전투에 이라크 공화국수비대가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02 /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의 선봉에 섰다. 사진 출처, 이라크 공보부

## 전세를 역전시킨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참전으로, 이란-이라크전쟁은 이라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1988년 여름 카르발라 5 작전을 감행, 이란의 핵심 요충지인 파우반도를 탈환하는 쾌거를 거둔다. 이에 고무된 후세인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전쟁영웅으로 칭송하고, 장군들에게는 거대한 농장과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선물한다. 이후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대규모 부대 개편을 단행해 3개 기갑사단, 4개 보병사단 그리고 1개 특수작전사단으로 구성된 기동군으로 변모하게 된다. (티크리트 출신들로 부대를 구성하는 게 어려워지자, 후세인은 이라크 정규군 가운데 우수한 병사들을 선발해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구성한다.)

## 폭풍이 지나간 후에

1980년 8월 2일,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쿠웨이트 침공의 선봉에 선다.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가공할만한 공격력에 쿠웨이트는 불과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영광은 거기까지였다. 거세게 불어 닥친 다국적군의 사막의 폭풍작전에는 최강을 자랑하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도 버텨낼 수가 없었다. 특히 1,000시간 동안 진행된 다국적군의 공습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사막의 폭풍작전 이후 펼쳐진 100시간 동안의 지상전에서는 그저 공무니를 빼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처참한 걸프전 패배 이후, 후세인은 긴급히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재건한다. 비록 과거에 비해 전력은 약화됐지만,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그래도 T-72전차와 T-62전차 900여 대, 예비전력으로 상당수의 T-55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03 /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경호부대에서 대규모 기동군으로 변모하게 된다. 사진 출처, 이라크 공보부





04 / 터키의 반대로 이라크 북쪽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결국 다국적군의 지상전은 이라크 남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사진 출처\_미 육군

## 바그다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군은 정찰자산을 동원하여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집중 감시했다. 당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바그다드 반경 50km 지점에 남과 북 그리고 서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후 레드라인(Redline)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바그다드 사수의 최후 방어선이었다.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재건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가 어느 정도의 작전능력을 갖고 있을지 관건이었다. 정찰을 통해 이라크 공화국수비대가 적어도 80% 이상의 작전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국적군은 이라크 북쪽과 남쪽에 동시에 진입, 단시간 내에 바그다드를 향하는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터키의 반대로 이라크 북쪽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결국 다국적군의 지상전은 이라크 남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05 / 이라크 자유작전 이 시작과 함께 다국적군의 공습은 공화국수비대에 집중된다.  
사진 출처\_미 공군

## 표적이 되어 버린 공화국수비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된다. 다국적군의 첫 공습은 역시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였다. 바그다드 시간으로 3월 20일, 1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키르쿠크에 위치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병영을 폭격한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다국적군의 공중전력은 수백회에 걸쳐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공습하기 시작했다.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 메디나 사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메디나 사단 후방에 위치한 함무라비 사단도 다국적군의 공습에 초토화됐다. 그러나 메디나 사단은 다국적군의 공습에 대비해 부대를 작게 쪼개 산개했고, 결국 3월 23일 밤 미 육군 소속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상대로 상당한 전과를 거두게 된다.

06 / 다국적군의 공습에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하나둘씩 해체되어 갔다.  
사진 출처\_미 국방부





07 / B-1B와 B-52 폭격기들이 근접항공지원에 전격 투입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사진 출처: 미 공군



08 / B-52 폭격기에서 투하된 CBU-105 폭탄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초토화시켜 버린다.  
사진 출처: 미 공군

##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동원된 폭격기들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의 공격 실패 이후, 미군은 고정익기를 중심으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에 맹렬한 공습을 가한다. 특히 B-1B와 B-52 폭격기들이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전격 투입된다. 이 가운데 백전노장 폭격기 B-52의 활약은 눈부셨다. 2003년 4월 2일, 바그다드 남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병대는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전차부대의 위협을 받고 공중지원을 요청했다. 마침 그때, 공중에는 CBU-105를 장착한 B-52 폭격기가 바그다드 주변을 초계비행 중이었다. 목표상공에 도착한 B-52 폭격기는 4만 피트 상공에서 전차부대 선두에 두발의 CBU-105를 투하하였다. 2발의 CBU-105는 차례대로 작동해 몇 초 사이에 24대 이상의 이라크 전차들을 파괴했다.



09 / 4월 5일 미 3사단 소속의 M-1A1 전차부대는 일명 썬더 런 기동을 통해, 바그다드에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사진 출처: 미 육군

## 산산이 조각난 공화국 수비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전차부대 절반이 무력화됐다. 겁에 질린 이라크군은 전차에서 뛰쳐나와 미 해병대에 항복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 해병대는 총 한방 쏘지 않고 전차부대 전원을 포로로 잡았다. 이날 이후 B-52 폭격기는 바그다드 주변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기계화 부대에 다시 한 번 CBU-105 4발을 투하했다. 투하된 CBU-105는 여단 규모의 기계화 부대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다국적군의 공습에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하나, 둘씩 부대가 해체됐다. 그리고 4월 5일, 미 3사단 소속의 M-1A1 전차부대는 일명 썬더 런(Thunder Run) 기동을 통해,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방어망을 순식간에 뚫고 바그다드에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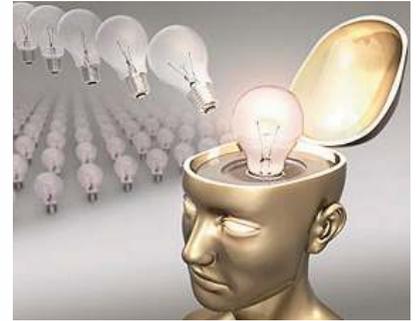
## 맺으며

걸프전과 달리 이라크전쟁은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에게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을 주지 않았다. 이라크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후세인 정권의 친위대인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제거해야만 했다. 결국,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과거 독재자들의 친위부대들과 같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AF**

# LEADERSHIP

## 자신의 가치를 100배 올리는 전략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자기관리는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대인관계 능력은 공동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자기관리 능력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신(修身), 즉 셀프리더십을 갖추고, 성품과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춰 신뢰성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



오래전에 전경련에서 이 시대에 대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덕목을 발표했다.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 국제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 진취적인 마음자세, 도전과 성취근성,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 올바른 가치관, 인간미, 책임감, 협력자, 예의바르고 올바른 행동이 그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3가지 항목만이 역량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7가지는 성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성품이 중요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성품은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늦게 다니지 말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호통을 치면서도 자신은 업무를 핑계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다.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애들을 태운 채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라고 큰소리치면서 처가 식구들은 등한시한다. 이런 가장의 큰소리를 앞에서는 모두 듣는 척하지만 돌아서서 역시 '너나 잘해!' 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기관리 능력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리더십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외적 성격 중심의 처세술, 즉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와 행동, 기법과 요령 등이 만연되었다. 그러다보니 기술과 전략 중심의 단기 기법으로 빨리 성공하려는 생각에 조직 운영과 기업 경영에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나는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한국인이 매우 유능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유능하고 부지런하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수신(修身)이 안돼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모든 변화하는 것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변함없는 원칙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원칙이 바로 서있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원칙(Principles)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늘의 법'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4천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통용되던 법칙을 알게 되면 6천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다시 개인과 조직이 외적 성격 중심에서 내적 성품 중심으로 바꾸고 원칙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품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요령과 인기 위주의 처세꾼들을 멀리하며 철저한 자기관리에 힘써야 한다. **AF**



공군, 영화를 만나다 <R2B: 리턴 투 베이스>

제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들어보는 R2B 이야기

AIR FORCE IN MOVIES  
\* 기획특집

Simple is the Strongest!

\* Photo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07. NEWS

\* Air Force Monthly

바다를 감동시킨 헌신

\* 생각하는 그림

# 공군 IN

좋아요 · 댓글 523

**캐스트**  
정지훈(조종사 대위 정태훈 역), 신세경(정비사 중사 우세영 역), 유근상(편대장 소령 이철희 역), 김성수(편대장 소령 박대서 역), 정호(조종사 대위 조태물 역), 이하나(조종사 대위 오유진 역), 이종석(조종사 중위 지석진 역), 정석원(구조사 중사 최민호 역), 조성해(단장 최병길 역), 오렬수(정비사 상사 민동원 역), 정한웅(국방장관 역)

**개봉**  
2012. 8. 9 예정

**운급현역**  
2011. 3. 21 ~ 2012. 3. 7(추거현역 포함)

**드라마**  
2011. 9. 23

**드라마**  
2011. 3. 13

**제작비**  
100억원

**감독**  
김동원

**운동제작**  
CJ 엔터테인먼트

**제작**  
(주)코리안투라, (주)주머니를

**제작/배급**  
CJ 엔터테인먼트

**장르**  
액션, 드라마

**제목**  
R2B: 리턴 투 베이스

영화 <R2B>는 이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소개합니다.

좋아요 · 댓글 1,758

타고난 호기심과 장난기로 소동을 벌이는 태클은 편대장 대서와 동기생 우진의 도움으로 제각전투비행단에서 적응해가지만, '탑간'으로 불리는 원추추위저 첩회하는 사사간건 부원합니다. 한편 최의 정비 수력을 갖고 있지만 자각공 성격의 정비사 서영을 만나면서 태클은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귀순을 희망하는 MIG-29기가 출현하고 귀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MIG-29기가 돌변해 사용 상공으로 돌격, 야공기와 시민들을 공격하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R2B>는 "Return to Base"를 활용한 단어로 영화에서서는 비임입부가 담긴 자전영입니다. 입부를 완수하는 동시에 "반드시 찾아 돌아올 것"이라는 면명을 받은 조종사들의 활약과 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동포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R2B: 리턴 투 베이스>의 스토리

### 군, 영화를 만나다

군을 가르는 원용, 석양을 만사시키며 눈부시게 빛나는 기체, 고출력임 사이를 어슬렁하게 지나치는 F-15K, 조국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밑에 주저함이 없는 조종사, 이를과 함께하는 정비사, 항공구조사, 그리고 가족을, 산장이 타원 것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란 하면 변함은 상상해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스크린에 담아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장르로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한 영화가 용감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제는 스크린에 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군을 소재로 한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이하 <R2B>)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1년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R2B>를 군군지에서 먼저 만나봅니다.



좋아요 10,000,394명 · 이가하고 있는 사람 813,957명

**R2B: 리턴 투 베이스**

Like

91

관람포인트

제작과정

시공사

R2B 소개

기획특전

클 · 사진, 군군본부 공화출부과 편집, 편집자

8월, 대한민국의 특이 워전어진다 <R2B: 리턴 투 베이스>

Wall

Info

Photo



Wall

Info

Photo

### <R2B> 이렇게 만들어졌다!



#### 6·25 60주년에서부터 출발한 <R2B>

2009년 6월 ~ 2011년 3월

6·25 60주년을 맞아, 국방부에서는 공군소재 영화들에 대한 제작지원을 검토합니다. 당시 공군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나리오와 지원 범위를 논의했죠. 이때 채택된 시나리오가 지금의 <R2B>입니다.

👍 532 💬 328



#### 배우들이여, 공군을 몸으로 느껴라!

2011년 2월

출연배우들이 확정되면서, 영화제작은 슬슬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우들과 공군간의 인지적, 정서적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2011년 2월 17일, 조종사 역할을 맡은 배우와 감독, 촬영감독을 대상으로 항공생리훈련이 이뤄집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657 💬 423



#### 실제 임무현장에 서다!

2011년 3월

2011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출연진들은 제11전투비행단을 찾아 자신이 분한 역할의 임무를 각각 체험합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 공군지 4월호 표지도 이때 찍었네요.) 이날 조종사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전투기 탑승체험을 가지고, 정비사 역할을 맡은 신세경은 일일정비사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387 💬 236



#### Ready, Get Set, Go!

2011년 3월 ~ 2012년 3월

항공기를 배경으로 한 촬영은 주로 제11전투비행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외 장면들은 각 비행단의 특성에 따라 제20전투비행단과 제17전투비행단, 제8전투비행단 등에서 촬영됐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257 💬 128



#### R2B의 꽃, 공중특수촬영에 도전하다!

2011년 5월

F-15K의 공중임무촬영은 할리우드 공중촬영전문팀인 '올프에어社'의 Lear Jet을 도입해 촬영했습니다. 기체의 앞과 아래에는 각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감독이 기체에 탑승한 채로 촬영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523 💬 345



### Wall

### Info

### Photo



####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움을 카메라에 담다!

2011년 6월



F-15K의 저고도 임무가 소백산 상공에 있던 날, 전 스태프들은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소백산 정상을 찾았습니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F-15K가 바로 머리 위를 날아갈 때 생기는 와류를 눈으로 확인할 정도였지요.

좋아요 · 댓글 달기

753 462



#### 必救人命,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2011년 4월 ~ 11월

영화에서는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라는 신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항공구조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헬기촬영은 항공구조사들이 있는 6전대에서 이뤄졌죠. 조종사와 항공구조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624 712



####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블랙이글스, 하늘을 수놓다!

2011년 8월

영화의 오프닝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로 시작됩니다. 블랙이글스 지상촬영은 블랙이글스의 모기지,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뤄졌습니다.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 실제와 같은 감동으로 영화 R2B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715 428



#### 실제와 좀 더 유사하게! 아니, 실제처럼!

2011년 6월 ~ 8월

세트장촬영은 로봇팔로 움직이는 조종석을 만들어 배우들의 세부적인 표정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F-15K와 MiG-29 등의 조종석이 실제 만들어졌죠. 360도로 회전하는 좁은 조종석 안에서 배우들은 “이렇게 조종사들이 힘들게 비행하는지 몰랐다”라면서 혀를 내둘렀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523 352



#### Post Production

2011년 9월 ~ 2012년 6월

편집, 컴퓨터 그래픽, 녹음 작업 등 영화의 디테일과 완성도를 위한 후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공군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항공기 음향 등 디테일한 부분에 중점을 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 댓글 달기

715 428



Wall

Info

Photo



**<R2B> 일곱가지 감상포인트!**

**01** 공군의 최선에 전투기 F-15K의 웅장하고도 다이내믹한 기동 전투기의 와류까지 그대로 포착해낸 촬영 기술 국내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탄생한 리얼한 공중전투장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공중 액션**

**02** 국산전투기 TA-50, T-50의 스크린 데뷔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퍼포먼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헬기들의 정교한 비행 **공군이 자랑하는 정예 항공전력의 총 출동**

**03** 한국영화에서 첫 시도한 '공중전' 씬 공중 촬영 전문가와 할리우드 전문팀의 합류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경종 **'최초 도전'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영화**

**04** 군 현역 조종사들의 철저한 기술 자문 작전처럼 진행된 촬영 과정 공군과 영화라는 두 전문 분야의 결합을 위한 노력 **프로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된 영화**

**05** 아무나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 항공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문가 정비사 조종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구조사 **공군의 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

**06** 가슴 시린 사연을 가진 이들이 나누는 끈끈한 전우애 남다른 직업 속에 숨겨진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 깨지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사람 이야기가 전해주는 감동**

**07** 화려한 캐스팅의 스타 파워와 이들의 각별한 팀워크 배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 전투기 탑승, 항공생리훈련을 소화한 배우들의 열정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이종석, 정석원, 조성하, 오달수, 정경호....캐스팅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영화**

좋아요 · 댓글 달기

912 652

**<R2B : 리턴 투 베이스> 티저예고편 공개!**

실제 공중전을 방불케하는 짜릿한 고공액션! 올 여름 최고 기대작 등극! 티저 예고편 바로가기 <http://j.mp/L69AXC>



지금까지 R2B 영화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는지요?

아직 영화가 개봉되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인 이야기는 영화를 보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군과 영화라는 너무나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았으니, 제작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들은 공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를 만들기 위해 촬영스태프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조율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안, 기본 임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이에 제작진들은 공군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장병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공군의 아름다움을 찾아 스크린에 완벽히 옮겨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R2B>는 이미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작과정을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실제 촬영 중에는 특히 더하다. 영화를 찍기 전에는 그 영화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완성한 뒤에도 그렇다. 그러나 실제 세트에 있을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영화의 성공 여부는 감독으로서 촬영 현장에서 내리는 선택이 처음 가진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년)의 감독 시드니 폴락)

공군이 함께 한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가 관객을 찾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영화 <R2B>의 힘찬 이륙을 기대합니다. **AF**



좋아요 · 댓글 달기

2,385

12,897명이 좋아합니다.

2,987개의 댓글 모두 보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 제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들어보는 R2B 이야기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수고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장쾌한 고공액션을 스크린에 담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인데요. 무수한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며 최고의 작품을 빚어낸 연출자, 출연배우, 그리고 공군 관계자들에게 스크린 뒤의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 공/통/질/문/

- Q1. 간단한 자기소개, 영화개봉에 대한 소감
- Q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 Q3. 영화 관람 포인트!
- Q4. 덧붙이는 말!

## F-15K를 처음 대했을 때의 감동,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어...

김동원 | <R2B : 리턴 투 베이스> 감독

**A1.** <R2B : 리턴 투 베이스> 연출을 맡은 김동원 감독입니다. 국방부와 공군이 적극 지원해준 덕에 실제 F-15K의 임무 모습들을 박진감 넘치게 담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소 소리로 최대한 많은 장면들을 찍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촬영계획 역시 실제 군사작전처럼 정교하게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현장에서 그때그때 변경하고 추가해야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공군본부와 해당 부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그럽게 잘 이해해주셔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는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A2.** 촬영에 앞서 감독인 저를 포함해, 주요 배우들이 실제 조종사들의 훈련과정을 체험했던 일이, 그 중에서도 가속도 내성 강화훈련을 경험해 본 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주연인 정지훈 씨의 경우 9G까지 도전해 거뜰히 견뎠는데, 힘든 고난도의 훈련을 자처하며 캐릭터에 몰입하는 뜨거운 열정에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F-15K를 처음 마주했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먼저 그 위용에 놀랐고, 다음으로 이륙 시 나는 굉음에 놀랐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였죠. 그때의 감동과 느낌을 영화 관객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A3.** 첫째,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익사이팅 고공액션입니다. 공군의 지원을 통해 실제 전투기가 출연할 수 있었고, <인센션>, <다크나이트> 등에 참여한 할리우드 항공촬영 전문스텝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고공액션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에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영화는 휴전선 인근 상공에 정체 모를 전투기가 출현해, 서울이 공격받을 위험에 처한다는 설정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마지막으로 공군이 수행하는 '비공식작전'입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재앙과 같은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출격에 나서는 전투조종사들과 그들을 날게 해주는 정비팀, 레스큐팀 대원들의 끈끈한 동료애는 영화 전체의 내러티브와 맞물리며 고공액션의 시각적 충격 이상으로 강렬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A4.**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올 여름, 관객들이 서울상공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R2B : 리턴 투 베이스>의 짜릿한 고공액션을 보시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공군인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 혹은 동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도전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에 많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몸무게 아홉 배의 가속도 견디며 조종사役に 몰입!

일병 정지훈 | 국방부 홍보지원대

**A1.** 국방부 홍보지원대 일병 정지훈입니다. 영화에서는 F-15K 조종사 정태훈 대위 역을 맡았고, 촬영이 끝난 후 입대했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제작과정이 길었던 작품이라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떨리기도 합니다. 영화가 잘돼야 하는데 말이죠(웃음). 조종사 역을 연기하면서 느낀 건, 조종사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촬영도 잘 된 것 같습니다.

**A2.** 촬영에 앞서, 가속도 내성 강화훈련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높은 중력을 견뎌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9G를 견뎠죠. 자신의 몸무게 9배를 견뎠다고 보시면 돼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꼭 참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영화를 찍을 때, 실제 조종사들처럼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3.** 사실 모든 씬들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찍었고, 모든 배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쉬운 씬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씬들이 애착이 가고, 정말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A4.** 국방부 홍보지원대 일병 정지훈입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전우님들. 저 역시 군에 입대해 나라를 수호하는 임무가 얼마나 명예롭고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건강 잃지 않고, 힘차게 군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R2B>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공군의 노력 마음 깊이 담아...

**A1.** 안녕하세요. 공군장병 여러분. 배우 신세경입니다. 영화에서는 정비사 유세영 중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영'이라는 친구는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하고, 비행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비사가 된 당찬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공군에 대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떠올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비사 역할을 맡았는데, 정비사분들이나 비행단 안의 다른 많은 분들이 조종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었어요.

**A2.** 촬영장에 배우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 분들이 함께 계셔야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씬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한 기억에 남아요.

**A3.** 출연배우들과 조화를 이룬 캐릭터, 그리고 서로간의 연기 앙상블(웃음)? 박진감 넘치는 고공액션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대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A4.**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감성대로 아주 큰 감동 안고 가실 수 있는 영화이니까요. 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파이팅! 정비사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신세경 | 정비사 중사 유세영 역



## 조종사들의 노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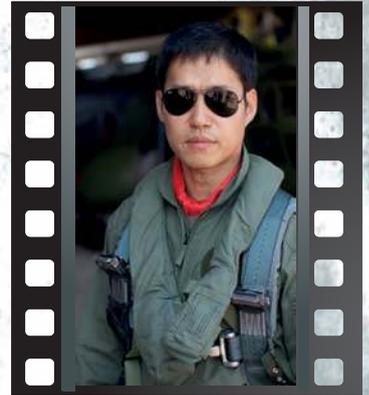
**A1.** 안녕하세요. 배우 유준상입니다. 영화에서는 제21전투비행단의 펠콘 편대장 이철희 소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철희는 임무에 충실하고, 군인정신으로 뚝뚝 뭉친 엘리트 조종사죠. 이 영화를 하기 전에는 공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멋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군 조종사분을 만나면서 정말 경이롭고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을 통해 이 분들의 노고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2.** 사실 영화 장면보다는... 영화 장면이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속도 내성 강화훈련을 받으면서 기절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F-15K 후방석에 탑승해 비행까지 해보면서 '조종사들의 임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에 낱알이 시큰해지기까지 하더군요.

**A3.**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다루어보지 않았던 고공액션 블록버스터예요. 관객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작품으로 다가갈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와서 보심이(웃음)!

**A4.** 영화를 함께 찍으면서 조국영공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는 공군 장병들의 모습들이 저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어딜 가도 이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유준상 | 편대장 소령 이철희 역



## 공군 장병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영화 되길...

이하나 | 조종사 대위 오유진 역

**A1.** 안녕하세요. 매우 이쁘네요. <R2B>에서는 조종사 오유진 대위 역을 맡았습니다. 유진은 남자를 못지않게 정신력이 강해 영화에서는 군기도 좀 짙는, <웃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린 그런 친구죠. 1분 1초를 늘 다투며,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조종사분들과 정비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공군 장병 여러분, 더 나아가 군 장병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2.** 영화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요. 영화를 찍으면서 공군 장병들의 삶에 대해 많이 알게 됐는데, 조종사분들도 실제 순직하신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더라고요.

**A3.**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공역에선 블랙버스터<웃음>? 여름을 맞아 영화가 개봉되는데, 시원시원한 화면과 비행, 그리고 넓고 푸른 하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있게 해줄 겁니다.

**A4.** 이제는 하늘을 보면 반딧으로 24시간 우리나라를 지키는 공군들이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 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해, 나라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공군장병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내가 바로 손 모델 조종사!

중령 이진욱 |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대대장

**A1.**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대대장 이진욱 중령입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군본부 문화 홍보과에 파견되어 영화제작지원 전담을 조율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A2.** 한동안 제작진들과 소식을 함께 하며 지냈는데,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점차 대단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영화 제작 현장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종합촬영소 같은 곳도 열심히 따라 다니다 보니, <R2B> 출연배우뿐 아니라 타 영화에 출연하는 스타들, 이를테면 송강호 씨나 설경구 씨 같은 분들과 인사도 하고, 농담도 나눌 기회가 생기더군요<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전투기 콕핏 촬영을 할 때, 배우들이 조종간을 움직이는 것이 어색해 제가 대신 조종간을 잡고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니, 영화에 나오는 손은 전부 제 손이더군요... CF 찍을 때 다리모델, 머릿결 모델이 있듯이 전 조종사 손 모델이 된 거죠. 영화보실 때 꼭 참고해주세요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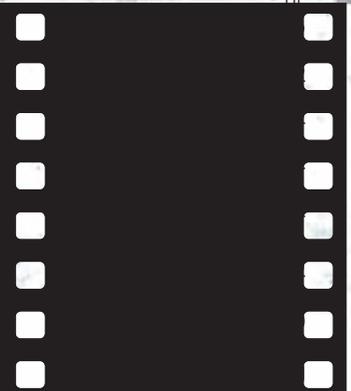


**A3.** 아무래도 제가 조종사다보니 공중전투장면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CG로 전투장면을 묘사할 때 가능한 리얼리티를 살리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영상에 전 세계에서 딱 두 팀밖에 없는 공중전투촬영팀 윌프에어가 찍은 영상도 들어가 있어, 정말 멋진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헬기구출장면도 손꼽히는 장면인데, 실제 항공구조사 요원들이 참가해 지상 및 해상침투장면을 연출해 헐리우드의 어떤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CF 감독으로 유명하셨던 분이라 영상미는 최고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탐간>의 토니 스크 감독도 원래는 CF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도 기존에 약간 딱딱했던 군 영화들과 다르게 다양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과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4.** 무엇보다도 많은 관객들이 보고, 즐기고 감동받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인들에게는 <백간 마후라>

반딧불이를 지도 구겨



“많은 어린이들이 저와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령 소윤영 |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

**A1.**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 소윤영 소령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 정지훈 씨의 멋진 비행장면이 압권인데, 사실 제가 조종한 겁니다.(웃음) 그 외에도 F-15K 공중기동촬영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저 역시 공군인으로 곧 개봉할 <R2B>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대한민국 공군이 국민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2.** 처음 공중기동촬영 지원임무를 부여받았을 때는 꽤나 난감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참고할만한 자료도 없었거든요. 영화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공중에서의 효과적인 촬영을 위해 지상에서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반복됐습니다. 사실 실제 비행훈련 때에는 전투기들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데 영화 속에서 F-15K의 위용을 실감나게 보여주자니 촬영기와 최대한 근접해서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촬영기의 속도가 전투기에 못 미친다는 점 때문에 저속으로 비행해야 한다는 애로사항도 있었죠. 촬영기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전투기가 조그마하게 잡혀 박진감이 떨어지고, 가까이 붙자니 안전문제가 걸리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A3.** 전투기들의 역동적인 기동장면, 주연배우들의 러브라인, 그리고 통쾌한 응징보복 씬!

**A4.**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용돈만 모이면 전투기 장난감을 사고, 온 방 안을 비행기 화보로 도배하다시피 했을 정도였죠.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 <탐건>을 보고,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꿈은 결국 이뤄져 소년은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조종사가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을 줄 어마어마한 영화의 제작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릴 적의 저처럼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AF**





# AIR FORCE IN MOVIES

“대한민국의 하늘이 뒤집어진다고?”

“어머 멋져. 저 파란 하늘, 그리고 조종사 좀 봐!”

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무더위로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여름날.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다보면 젊은 처자들의 탄성과 소곤거림을 듣고 나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게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의 포스터 때문이다. 푸른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행편대와 조종간을 잡고 관객을 바라보는 멋진 조종사의 모습이 담긴 이 포스터를 보며 탄성을 자아내는 사람들. 아마도 한국영화 포스터 중에서 이리 멋진 조종사의 모습을 만나는 건 처음일 것이다. 물론 포스터뿐 아니라 영화는 더 멋지리라 생각한다.

나는 영화 일을 하면서 일 년에 약 700편의 영화를 보고 그중에서 500편 이상을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본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만 편에 가까운 영화를 봤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군, 비행기 조종, 그리고 조종사의 일상 등을 다룬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일까? 그것은 이들 영화가 감독이 연출하기도, 배우들이 연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적인 표현은 당연하고, 극적인 이들의 삶을 스크린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영화가 완성되고 나면 관객들이 얻어가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듯 강인하게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몇 편의 영화들과 이제 곧 개봉을 앞둔 영화 <R2B : 리턴 투 베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 공군의 대표작 **빨간마후라**

공군과 조종사를 다룬 영화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상옥 감독이 연출하고, 신영균, 최은희, 최무룡 등이 연기한 영화 <빨간마후라(1964)>를 떠올릴 것이다. 6·25 당시 강릉 공군기지를 배경으로 극한상황에 부딪히는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조국애를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는 1964년 서울 시민이 약 250만 명이었던 당시 명보극장에서 개봉해 22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해외로 수출되어 큰 성공을 이뤘고, 제11회 아태영화제에서 감독상(신상옥)과 남우주연상(신영균)을 수상했다. 영화의 내용이나 촬영, 편집, 기술 등에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한국전쟁 스펙터클 영화의 대표작이며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겠다.



● 폭격기 승무원들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다. *Memphis Belle*

외국 영화의 경우에도 강인한 인상을 남긴 작품들이 여럿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는 영국군의 B-17 폭격기 '멤피스 벨(Memphis belle)'의 이야기를 다룬 마이클 케이트 감독의 영화 <멤피스 벨(1990)>은 전쟁의 참상, 그리고 승무원으로 참전한 젊은이들의 고뇌와 폭격기 승무원들의 긴박한 전투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탐색불허, 추적불가, 통제불능! 스텔스 STEALTH

'탐색불허, 추적불가, 통제불능'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중액션 영화 <스텔스(2005)>도 잊지 못할 작품 중의 하나다. 립 코헨 감독이 연출하고, 조쉬 루카스, 제시카 비엘, 제이미 폭스가 출연한 이 영화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 스텔스기가 악천 후 속에서 극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돌발 상황을 겪은 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며 일어나는 이야기길 담고 있다. 초반부터 뛰어난 그래픽을 이용해 강한 스피드와 함께 과감한 스케일과 짜릿한 공중 액션을 선보여 관객들을 만족시켰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됐다.



● 0% CG, 100% 리얼 스카이 액션! <마하2.6: 풀스피드> 마하2.6 풀스피드

또한 미국이 아닌 유럽의 프랑스 공군을 다룬 영화 <마하2.6: 풀스피드(2005)>가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신개발 전투기 미라지 2000을 둘러싼 음모를 담은 작품으로 이 영화를 연출한 제라르 피레수 감독은 컴퓨터 그래픽 등의 디지털 특수효과나 3D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제 촬영으로 영화를 만들어냈다. 거리의 자동차가 아닌 하늘의 전투기들이 펼치는 리얼 체이싱 장면은 관객들에게 시원한 전율과 짜릿한 긴장감을 안겨준 작품이다.



● 전투기 조종사들의 인간애를 다루다. 라파예트

그런가하면 토니 빌 감독이 연출하고 제임스 플랭코가 출연한 <라파예트(2006)>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인간애를 담은 작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프랑스. 아직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결성된 미국인 최초의 전투 비행단인 라파예트(Lafayette Escadrille)의 일곱 전투조종사들의 전우애를 중심으로 미국남자와 프랑스여인의 사랑이라는 달콤함까지 곁들여진 멋진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아내고 있다.



## ● 그 외의 공군 영화들

이외에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하고 감독했던 <파이어 폭스(1982)>,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준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1986)>,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추락한 정찰기 조종사와 그를 구출하기 위한 해병특공대를 그린 존 무어 감독의 <에너미 라인스(2001)>, 제2차 세계대전 중 체코가 항복하자 영국군으로 독일에 맞서 공군생활을 하게 되는 조종사의 인생여정을 담은 잔 스페락 감독의 <다크 블루 월드(2001)> 등이 있다.



## ● 그리고 <R2B: 리턴 투 베이스>

# R2B: 리턴투베이스

그리고 올 여름 관객을 찾는 김동원 감독이 연출하고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이하나 등이 출연하는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가 있다. 휴전선 인근 상공에 정체 모를 미그 29기가 출현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공격받을 위협에 처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비상출격에 나서는 전투조종사들과 그들을 날게 해주는 정비팀, 레스큐팀 대원들의 끈끈한 전우애가 영화에 담긴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배우들은 사전 비행교육, 시뮬레이션, 비행훈련 등을 통해 실제 조종사와 같은 훈련을 받으며 연기를 준비했고, 특히 실제 전투기 F-15K가 등장하여 비행장면의 리얼리티를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공군 영화의 DNA?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그래픽 또는 리얼 촬영 등을 통해 보여주는 고공 액션과 조종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정, 전우애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죽음과 직면해야 하는 조종사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며, 이들이 펼치는 사랑은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로맨틱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또한 영화에서 보여주는 고난도의 액션은 보는 이의 두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무더위쯤은 단번에 날려버리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리얼한 연출을 위해 도입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 공군의 지원을 받은 군용시뮬레이션을 통한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실제 항공촬영은 관객들에게 보다 리얼한 영상을 선사한다.

하지만 공군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기에는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 촬영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일단 보안상의 이유로 촬영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배우들은 조종사를 연기하기 위해 조종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조종사들 역시 임무수행 등의 이유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런 이유로 공군을 다룬 영화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8월, 하늘에 전부를 건 그들이 온다!

약 사십여 년 전, 나도 어린 시절 공군하면 '빨간 마후라'를 떠올리고, 그 가사에 맞춰 오른손을 위아래로 휘저으며 멋진 파일럿을 꿈꿔보기도 했다. 이젠 돌출한 배를 가리기에 급급한 나이가 됐지만, 공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가 등장하면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공음과 함께 파란 하늘을 하얗게 가로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극장을 향해 거리낌 없이 달려갈 것이다.

올 여름,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공군의 멋진 활약이 스크린을 채울 것이라 생각한다. 또 이 영화로 우리나라의 영화관객뿐 아니라 세계의 영화관객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의 멋진 모습을 한류와 함께 오래도록 각인시키리라 기대해본다. **AF**

Photo Sketch 글. 편집실 사진, 김재기 프리랜서 사진사 모델. 하사 김세영, 한희성·일병 김수빈, 김명규(교육사령부 전술교관실)·일병 정성록(교육사령부 화기교관실)

구분동작은 줄이고! 전투력은 높이고!

# Simple is the Strongest!

최근 교육사령부는 '부대 기본교육훈련 교범'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불필요한 구분동작을 단순화하고, 미사용 동작과 용어를 폐지해, 전투현장에서 실제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지요. 실전적 교육훈련과 전투형 장병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육사령부의 노력을 편집실에서 소개합니다.(페이지 관계상 부대 기본교육훈련 과목 중, 총검술과 지상사격만 소개합니다.)



**| 필러 |** 2개의 구분동작을 한 번의 연속동작으로! 찢은 후 오른 무릎을 굽히면서 총기를 뒤로 빼던 구분동작을 오른 무릎의 굽힘없이 총기만 돌려 빼는 것으로 개선했다.



**| 때려 |** 2개의 구분동작을 한 번의 연속동작으로! 오른팔을 쪽 뺀어 길게 타격하던 동작을 짧게 끊어 타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 엎드려 썩 |** 5개의 구분동작을 1개의 연속동작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왼손을 45도로 뺀고, 지면에 손을 짚으며 하체를 30cm 이상 도약하면서 엎드리던 동작을 왼손으로 지면을 짚고 엎드리는 연속동작으로 개선했다.

**| 무릎 썩 |** 2개의 구분동작을 1개의 연속동작으로! 거총 전까지 총기를 지면과 수직상태로 유지하던 자세를 총구가 항상 적을 향하도록 변경시켰다.



## 〈공군 부대기본교육훈련 교범〉

# 획기적 개선으로 실전에 부합한 **강함 전사** 양성

글. 중령 이규완 | 교육사령부 학교교육처장

“가르치다”는 뜻의 敎(敎)와 “범”이라는 뜻의 範(範)의 결합인 교범(敎範)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법, 즉 “모범으로 삼아 가르치는 기본 법칙”이라는 의미이다. 부대훈련에 있어 교범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에게 거푸집이 중요한 것과 같다. 즉, 칼의 틀이 되는 거푸집처럼, 교범은 훈련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부대훈련의 거푸집, 기본교육훈련교범이 2012년 6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5년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은 관행적 또는 군기유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위한 훈련’을 탈피하고 실제 전투현장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필승의 정예 공군인 양성”이라는 교육훈련의 목표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개정과정에서 훈련 관계관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교육부대와 실무부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개정의 범위도 부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도수제식, 총검술, 사격 등 모든 기본훈련의 주요 자세와 구분동작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군인으로서 어울리지 않거나 이미 사용하지 않는 동작의 폐지, 불필요한 구분동작의 단순화, 지나치게 세부적인 동작표현 현실화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격훈련〉의 경우, 조준-사격 간의 신속한 동작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기존에 2~5개의 구분동작으로 나누어져 있던 ‘엎드려 쏘’, ‘앉아 쏘’, ‘쪼그려 쏘’, ‘무릎 쏘’의 사격자세를 하나의 연속동작으로 전환하여 사격 자세의 완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다음으로 〈총검술〉의 경우, 개인 전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2개의 구분동작으로 나누어져 있던 ‘때려’, ‘찔러’, ‘돌려쳐’, ‘막고 차’의 자세를 하나의 연속동작으로 단순화하여 총검의 움직임과 타격점까지의 도달거리를 최소화하였고, 이를 통해 동작의 실전성과 공격 및 방어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제식훈련〉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제식의 시작인 ‘차려 자세’는 지나치게 경직된 자

세에서 벗어나 당당한 군인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편히 앉아’ 시에는 다리를 꼬면서 가부좌로 앉는 구분동작을 폐지하고 편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뽕걸음(구보)’ 시에는 기존에 출발 전 상체를 10~15° 숙이는 자세와 구보 중 팔을 직각으로 유지하도록 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뛰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걸음별 보폭 및 보속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한편, 느린 걸음, 제걸음, 길걸음 등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제식동작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개선된 〈기본교육훈련교범〉이 양성교육과정에 반영될 경우, 훈련생들의 신속한 동작 숙달을 통해 양성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사령부에서는 교범 개정 이외에도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력·정신력 구비와 신분별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행군 일정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인 ANNE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생존성 강화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의 강화뿐만 아니라 훈련병 수료행사 확대, 수료와 함께 외박 시행 등 훈련과정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훈련의지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군교육사령부는 실전에 즉각 활용이 가능한 정예장병 양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AF**

# Unit Training

## 통합화력 전투훈련

6월 14일, 참모총장은 승진사격장에서 통합화력 전투훈련을 검열하고 참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이날 “우리 軍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우리 軍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전자전 훈련장비 인수행사

참모총장은 6월 19일, 제8전투비행단에서 전자전 훈련장비 인수행사를 주관하고 사업관계자들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인수기념식을 통해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국내·외 사업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새로 구축된 장비를 최대 활용하고 훈련함으로써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우면산 포대 대비태세 현장 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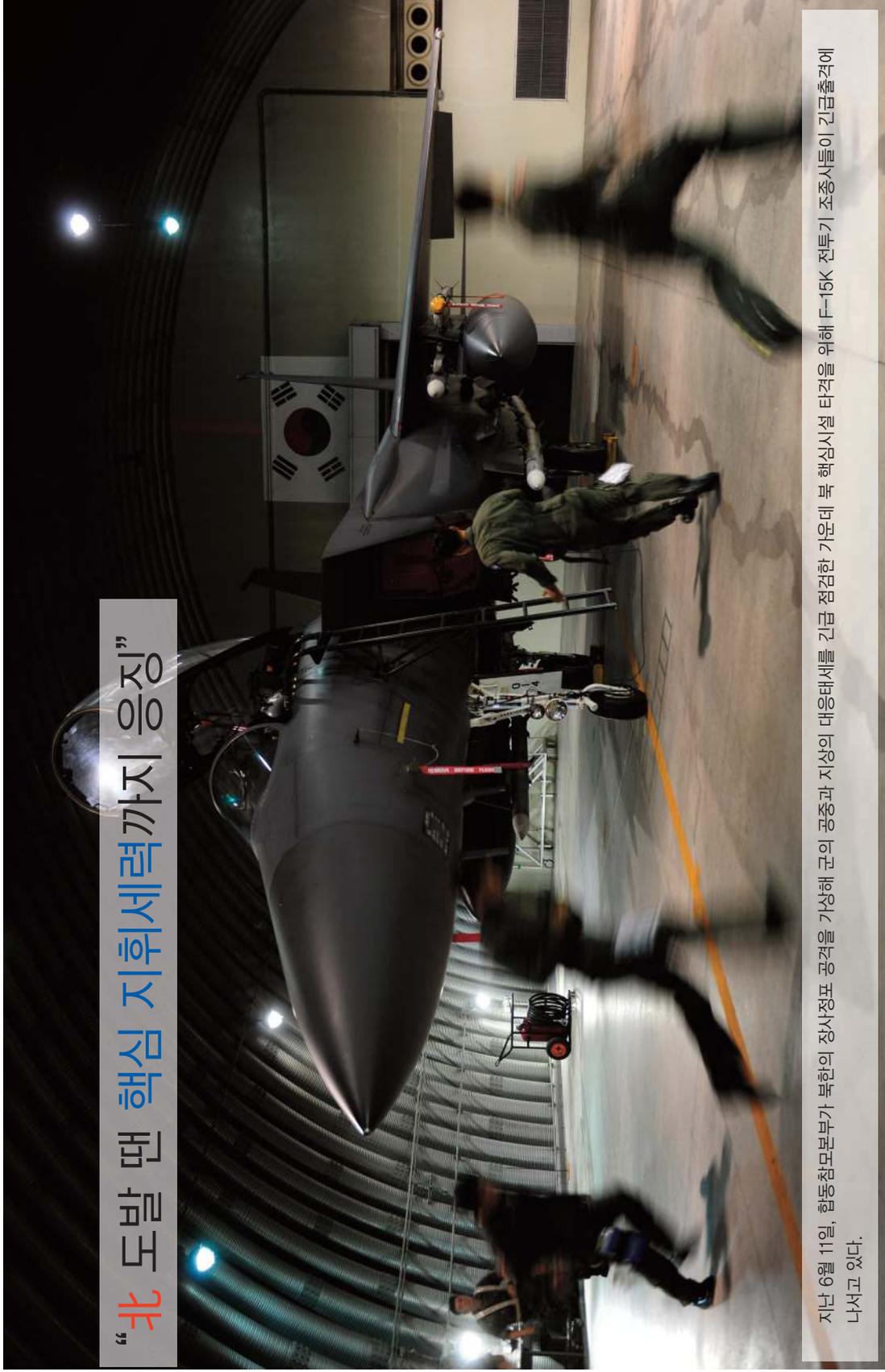
참모총장은 6월 8일, 우면산 포대를 방문하고 대공방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은 후 작전지역과 풍수해 대비 태세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우면산 포대는 최신 방공무기체계를 운용하며 수도권 영공방위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적 도발 시 평소 연습한 절차에 따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R FORCE MONTHLY

2012. 07. NEWS

“北 도발 땀 핵심 지휘세력까지 응징”



지난 6월 11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가상해 군의 공중과 지상의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한 가운데 북 핵심시설 타격을 위해 F-15K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급출격에 나서고 있다.

대구 기지 'K-2 오케스트라' 창단 기념연주회  
전 부대원과 가족이 음악으로 하나 되다!



군수사령부는 5월 31일, 대구기지 장병들과 군 가족으로 구성된 K-2 오케스트라의 창단 기념 연주회를 가졌다. K-2 오케스트라는 지난 3월 15일 '음악을 통한 소통과 화합'이라는 모토로 창단되어 군수사 군악대의 도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상호교류합의서 체결로 박차를 가해 왔다.

이날 연주회는 200여명의 부대원과 군가족이 모인 가운데 바이올린, 플루트 앙상블의 합주와 독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트럼본 연주자로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윤우 군수사령관은 금관 앙상블의 연주에서 '항수'를 직접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찬조 공연으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아울로스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찬조 공연으로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당일 공연에는 제11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다 5월 초 전역한 이찬규 예비역 병장(22)이 특별 출연해 E. Elgar의 '사랑의 인사'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이 병장은 "제대가 두달 남은 무려한 시기에 삶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해준 K-2 오케스트라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공군의 뿌리' 되새겨  
제3훈련비행단, 한우성 기자 초청강연 개최



지난 6월 19일, 제3훈련비행단은 재미 언론인 한우성 기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계획되었다. 약 600여명의 비행단 장병들은 강연에 참석해 한우성 기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날 한우성 기자는 강연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해외에서 공군 창설을 시도했던 항공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된다."며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가 되었던 이들의 헌신을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오늘 강연회에 참가한 하정균 일병(20)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오늘 강연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가진 공군의 일원인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졌다"며, "강연회를 통해 얻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 전우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공군시집  
〈공감〉 발간되다!



공군과 하늘을 소재로 한 아주 특별한 시집이 7월초 발간된다. 1950년 창간한 월간 「공군」, 1951년 창간한 「코메트」지, 공산신문 등 공군이 발행해 온 간행물들과 공군본부와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장서들 사이에 숨어있던 주옥같은 시 120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 책 제목은 〈공감〉. 작품 수집과 정리에는 공군애호문인단체인 창공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수현 시인이 담당했다. 공군은 이 책을 공군본부와 각급부대, 주요 협력기관, 공군애호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7월 11일에는 공군회관에서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 바다를 감동시킨 **헌신**



네덜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칙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성난 폭풍우가 미친 듯이 불어대더니 집채만 한 파도가 외로이 떠 있는 어선 한 척을 집어삼키려고 큰 너울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선원들은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고, 구조대 대장은 경보를 듣자마자 즉시 대원들을 불러모아 보트에 올라타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해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지는 구조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손마다 등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구조를 마치고 돌아올 구조대의 귀환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 그토록 기다리던 구조대의 보트가 해안가에 당도했습니다. 어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귀환자의 숫자를 세던 구조대장은 아직 한 사람이 조난당한 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들썩거리던 사람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조대장은 재빨리 구조대를 결성해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열여섯 살 소년 한스가 용감하게 자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스, 안 가면 안 되겠니. 10년 전에 네 아버지가 해난 사고로 돌아가셨어. 게다가 3주 전에는 네 형이 바다에 나갔다가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잖니. 이제 이 엄마에겐 너 하나뿐이야. 제발 부탁이니 가지 마라.”

그간의 맘고생 탓인지 파리하게 여윈 얼굴로 애원하는 어머니의 눈길을 바라보며 한스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가겠어요. 모두가 ‘난 못 가. 다른 사람더러 가라고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스는 두 팔을 벌려 엄마를 꼭 안아준 다음 구조보트를 타고 한없이 펼쳐진 바다의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 시간쯤 흘러 구조보트가 어둠을 뚫고 사람들의 시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뱃머리 위에 선 한스가 힘차게 손을 흔들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을 찾았어요! 엄마, 형을 찾았어요! 형을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선 한스의 용기와 헌신이 매서운 바다마저 감동시켜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형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은 아닐까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 Hollywood English

웃기는 노래들이 세상을 휩쓴다.

\* Air-Supply

권력을 탐한 맥베스의 불면의 권좌,  
셰익스피어&베르디의 맥베스

\* 인생은 아름다워

7월의 문화행사

\* Preview

분수가 필요해

\* Art in Everyday

36.5

Culture





### 창조집단 픽사의 열세 번째 애니메이션

“우리의 파트너, 스승, 친구였던 스티브 잡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영화를 바칩니다(dedicated with love and gratitude to Steve Jobs our partner, mentor and friend).” 1986년 스티브 잡스가 세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새 영화 <메리다와 마법의 숲 Brave>은 위의 자막으로 영화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위대한 창조집단을 만든 그를 추모하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그동안 <업 Up>,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 <라따뚜이 Ratatouille>, <토이 스토리 Toy Story> 시리즈 등 12편의 영화를 세상에 내놓았고,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6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까지 2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창의력이 뛰어난 픽사는 2006년 월트디즈니와 합병하였는데, 월트디즈니가 제시한 인수합병 금액은 무려 74억 달러입니다. 이는 월트디즈니가 픽사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지요.

### 픽사의 창조력의 비법은 두 개의 ‘C’

그렇다면 과연 픽사의 창의력(Pixar's creativity)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C’로 시작하는 Collaboration(협업)과 Child(어린이)입니다. 먼저, 협업. 픽사 대학교(Pixar University)의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Alienus Non Ditius. 영어로는 Alone no longer, 즉 ‘(픽사 멤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아이디어(good idea)를 평범한 팀(mediocre team)에 주면 그 아이디어를 망칠 가능성이 높지만, 평범한 아이디어라도 좋은 팀에게 주면 창조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에 협업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이번엔 어린이. 그들의 창의력의 비법은 ‘세상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looking at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child)’입니다. 아인슈타인도, 피카소도, 스티브 잡스도, 그리고 스티브 스피버그도 모두 입을 모아 강조하듯이 인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모든 창조의 원천은 아이의 순진한 호기심(innocent ‘why’)이기 때문이지요. 픽사의 열세 번째 영화인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제작진도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메리다 공주, ‘최종병기 활’을 들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고대이고, 무대는 스코틀랜드입니다. 던브로 왕국의 퍼거스 왕과 엘리노어 왕비에게 낳은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메리다(켈트 맥도널드)이고, 활쏘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메리다는 영화의 도입부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내 삶은 온통 각본대로다. 엄마처럼 왕비가 돼야 하니까

(My whole life is planned out, preparing for the day I become, well, my mother).” 특하면 “하지 맬!”을 외치며 딸의 미래를 간섭하는 엘리노어 왕비는 그러는 메리다를 늘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여러 부족과 동맹을 맺고 있는 퍼거스 왕은 모든 부족장들과 그들의 장남을 불러 모읍니다. 힘겨루기와 활쏘기 경기를 열어 딸의 신랑감을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메리다는 자신의 뜻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혼인을 결정해버린 부모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메리다는 시위의 뜻으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메리다가 쏜 활이 표적에 명중하는군요. 메리다는 엘리노어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내 운명을 바꿀테야(This is so unfair. I will change my fate).”

### 메리다 공주, 마녀에게 찾아가다

메리다가 성을 뛰쳐나와 찾아가는 곳은 ‘송곳 암벽’과 ‘불 폭포’ 너머에 있는 마법의 숲입니다. 도깨비불이 메리다를 그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보여준다’는 전설의 주인공인 도깨비불이 공주를 목각예술가로 변장한 마녀에게 데려간 이유는 뭘까요? “저의 엄마를 바꿔놓을 마법의 주문을 하나만 줘요. 제 운명도 바꿔줄 주문을요(I want a spell to change to change my mum. That will change my fate).” 메리다가 모든 목각 작품들을 다 사겠다고 하자 마녀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성에 돌아온 뒤 메리다는 엄마를 지켜봅니다. 마법이 통한다면 분명 잔소리꾼 엄마가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뵐새, 그 무렵 성 안에 무시무시한 꿈이 나타납니다. 퍼거스 왕이 모르두라고 부르는 꿈입니다. 왕과 모르두는 구면입니다. 언젠가 왕의 다리를 멩강 잘라버린 꿈이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두는 마녀가 보낸 꿈은 아닐까요? 상상조차 못한 상황에 처하자 메리다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데...! 과연 메리다는 꿈에 맞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 “10년 뒤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다시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세웠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잡스는 조지 루카스의 ILM 스튜디오가 컴퓨터 부서를 팔겠다고 내놓았을 때 1,0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인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잡스에게 행운의 기회를 선사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존 레스터입니다. 지금은 픽사의 최고창조경영자(CCO, Chief Creative Officer)인 그가 직접 만든 짧은 단편영화 하나를 내밀었던 건데, 그걸 본 잡스가 단언합니다. “10년 뒤 컴퓨터가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토이 스토리>(1986)입니다. 과연 픽사의 열세 번째 작품인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우리에게 어떤 창조적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큼니다. **AF**

권력을 탐한 맥베스의 불면의 권좌

# 셰익스피어 & 베르디의 맥베스

스코틀랜드의 피난민



세 명의 마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는 '맥베스 부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이름도 전면에 드러내지 못한 채, 맥베스의 살인을 부추기는 여인... 권력을 향한 욕심에 남편을 살인마로 몰고 가는 비정한 여인...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희곡에 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셰익스피어를 존경했던 작곡가 베르디 역시 맥베스 여인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 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까이 하며, 작곡가 본인이 대본 작업도 도맡았던 베르디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위대한 비극에 음악을 붙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가장 짧고 진행 템포도 빠르다는 <맥베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내면을 음악으로 그려야 했던 베르디에게는 그 어떤 작품보다 길게 느껴졌으리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맥베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스코틀랜드 왕의 군사령관인 맥베스는 동료 '뱅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의 마녀들을 만난다. 나무가 우거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음산한 숲속... 마녀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맥베스를 극진히 맞이한다. 클레미스의 영주이자, 코더의 영주이며, 스코틀랜드의 왕이라는 것이다. 마녀들의 난데없는 술수라며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던 맥베스, 그러나 때마침 왕의 전령이 찾아와 국왕이 수여한 작위를 통보한다. 법을 어긴 코더 영주의 작위를 맥베스가 받게 되었다고... 마녀들의 술수라고 생각하던 맥베스에게는 욕망의 그림자가 찾아온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찬 욕망... 왕의 선조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들은 동료 뱅크와 함께... 맥베스는 곧 자신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모든 일을 편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맥베스보다 편지를 먼저 접한 맥베스 부인... 그녀는 누구보다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힌다. "권력을 향한 길에는 악행으로 가득한데, 불안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물러서는 것은

VERDI  
**Macbeth**  
 ADDEI · NILSSON · PREVEDI  
 Accademia di Santa Cecilia, Rome  
 SCHIPPERS  
(BY COURTESY OF COLUMBIA RECORDS INC.)

DECCA



그에게 괴로운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대담한 과업을 이루는 용기를 주겠다”며 왕의 권좌를 탐하는 맥베스 부인... 그녀는 남성 최고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용기’를 자극하여 불안해 하는 남편의 살인을 부추긴다. 그날 밤, 왕과 함께 성으로 돌아온 맥베스는 살인자가 될 운명에 처한다.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맥베스는 갈등한다. 그 누구보다 왕의 권력을 수호했던 그였기에, 칼을 든 자신의 손은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 반역을 진압했던 맥베스... 그가 스스로 반역의 칼을 집어 든 것이다. 왕을 살해하기도 전에 맥베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왕을 살해한 죄인이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칼, 어둠속을 헤매는 유령의 모습... 그것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살인의 그림자였다. 모든 잔인함은 태양을 베일로 덮은 어둠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음산한 공기로 가득한 사나운 밤에, 맥베스는 피 묻은 칼을 들고 돌아온다. 하지만 맥베스의 귀에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맥베스, 너는 가시베개만을 뵈 것이다! 글래미스, 너는 살인을 하였다! 코더, 그래서 너는 이제 잠들지 못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살해되고, 왕의 아들은 누명을 썼다. 존속 살해라는 끔찍한 누명, 그것은 맥베스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맥베스에

게 주어진 최고 권력의 좌는 또 다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살인으로 권좌를 얻은 자, 살인으로 영속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다. 뱅코가 왕의 선조가 될 거라는 마녀들의 예언... 그것은 곧 자신의 몰락을 예견한 것이었다. 뱅코와 그의 아들을 경계했던 맥베스는 자객에게 뱅코의 죽음을 지시하고, 아들과 함께 칠혹 같은 어둠의 숲을 지나던 뱅코는 가까스로 아들의 목숨만은 살리고 자신은 자객의 검에 맞아 쓰러진다.

무대는 맥베스 성 안에 있는 화려한 무도회장. 왕의 권좌에 오른 맥베스는 영주들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고 있었다. 각자의 서열에 따라 정렬한 영주들, 그들 앞에 왕이 된 맥베스와 여왕이 된 맥베스 부인은 건배를 제의한다. 그때 등장하는 자객. 그의 모습에서 맥베스는 뱅코의 죽음을 알아차리지만, 그의 아들은 놓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여러 하객 앞에서 뱅코의 불참을 애써 아쉬워하는 맥베스... 맥베스는 뱅코를 대신해 그의 자리에 앉지만, 바로 그 때 뱅코의 유령이 나타나 맥베스를 쳐다보고 있다. 당황한 맥베스... 그는 “피투성이인 너의 물골로 나를 위협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주위 사람들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 시체가 격노하여 내 얼굴에 피를 뿌리는구나!”라며 유령에게 외친다. 그 순간 당황한 주위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한다. 이제 왕실에는 죄지은 사람의 저주받은 손길만이 남아 있음을...

맥베스가 경계한 것은 뱅코의 후손만이 아니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 ‘맥더프’가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눈치 챈 맥베스는 맥더프와 그의 가족도 살해할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맥더프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경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곳은 세상을 떠난 선왕의 아들과 맥베스의 폭정을 피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에서 맥더프는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한편 왕을 살해한 이후로 단 하루밤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맥베스는 자신에게 스코틀랜드 왕을 예언했던 마녀들을 다시 찾아간다. 죽음으로 권력을 얻어낸 자, 결국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일까... 마녀를 찾아간 맥베스는 그들로부터 예언을 듣는다. “맥더프를 경계하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너를 죽이지 않는다. 비르남의 숲이 너를 향해 올 때까지 너는 영광스러운 무적이 될 것이다.”

마녀들의 예언은 맥베스와 그의 부인에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거대한 숲이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적으로 번민했던 이들에게 편안한 밤이 있었을까. 자신의 손에 지울 수 없는 피가 묻었다고 생각하는 맥베스 부인... 그녀는 매일 밤을 피의 냄새 속에 살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지도 않은 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다. 결국 권력을 탐하던 맥베스 부인은 지울 수 없는 피의 냄새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만다.

부인의 죽음을 접한 맥베스... 그는 자신에게도 죽음의 전조가 드리워져 있음을 예감한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국경, 비르남 숲에 있었던 맥더프는 영국 병사들과 함께 비르남 숲의 가지로 위장하고 성 가까스로 쳐들어온 것이다. 결국 맥더프와 맥더프릴 수밖에 없었던 맥베스...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고 외치지만, 맥더프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 거부할 수 없는 예언의 저주... 이제 그것은 맥베스의 이마에 내려졌다. 죽음으로 왕위를 얻은 자, 또다시 죽음으로 왕위에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고통받은 자, 영원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둔다. **AF**



Jeppe Hein\_Appearing Rooms\_2004

# 분수

홍승환

한낮의 분수가  
물바람을 일으키며  
쏟아오른다.

6월의 장미는  
태양이다.

글라디올러스 꽃잎에  
앉아 있던 나비가  
분수기에 와살고 있다.

날리는 물가루를  
꽃가루로 안 나비는  
춤을 추고 있다.

날개가 젖는다.  
나비는 잠이 온다.  
물 위의 꽃잎처럼  
나비가 떠왔다.



Niki de Saint Phalle\_Tarot Garden

# 분수가 필요해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으로 샅샅이 솟는 분수만큼이나 상쾌하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의 바닥 분수는 오늘도 옷을 입은 채 뛰어든 꼬마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도심의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며 그 옆을 지나자면 나도 그냥 모른 척 아이들처럼 그 안에 섞여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분수는 오래전 신과 영웅의 상징이었다.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수단으로, 또 수도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에는 마을의 공동수도 역할로, 그리고 저택이나 광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조경시



# 웃기는 노래들이 세상을 휩쓴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준비해  
용감한 녀석들로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개는 웃고 있어. 아니아니아니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너만 울고 있어. 듣지마.”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다. 하지만 듣다보니 장난만은 아니다. 듣다보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를 반복하게 만드는 형돈이와 대준이의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는 요즘 가요계 최대의 화젯거리다.

개그맨 정형돈과 힙합 뮤지션 데프콘이 함께한 이 팀은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로 음원차트 상위권에 들었고, 언론은 온통 이들 이야기다. 예능에서 인기 높은 정형돈과 힙합 뮤지션이자 최근 예능인으로도 활동하는 데프콘이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리라는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음악프로그램 활동 하나 없는 그들의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을 단지 예능프로그램의 인지도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는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있다. 정형돈과 데프콘이 시종일관 어설픈 동작과 코믹한 표정 연기를 하는 뮤직비디오는 언제 봐도 즐겁고, ‘니 편들어주는 친구애기 듣지마. 니 진짜 친구라고 넌 믿겠지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 친구랑 만나니까 듣지마.’ 같은 가사는 요즘 세태를 재치 있게 묘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는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만들어졌다. 뮤직비디오는 길거리에서 테이프값만 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노래 역시 스튜디오 대여료를 빼면 돈이 안 들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데프콘 혼자 사운드를 만들어 제작했다.

이런 제작방식은 그동안 인디 뮤지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안 좋을 때 들으면 안 좋은 노래’는 오히려 ‘싸게 만들어야’ 먹힐 수 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안 좋을 때의 사람들이 만드는 노래를 제작비 잔뜩 들여 만들 수는 없다. 최근 개그맨들이 랩음악에 도전해서 성공을 거두는 데

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미 개그맨 유세윤과 프로듀서 뮤지가 함께하는 UV가 '쿨하지 못해 미안해'와 '이태원 프리덤'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에 출연중인 개그맨들 역시 'I don't care'로 큰 인기를 얻었다.

형돈이와 대준이가 그러하듯 UV는 '이태원 프리덤'에서 '홍대 사람 너무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라며 요즘 거리 풍경을 묘사하고, 용감한 녀석들은 'I don't care'에서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세상을 비판한다. 그들의 노래는 이른바 '없는 사람' 또는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한다. 그 점에서 개그맨들이 노래하는 랩 음악은 요즘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할만하다.

지난 몇 년간 가요계는 아이돌이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돌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시름 다 잊게 하는 판타지다. 정교하게 짜인 군무와 사람들의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 잘 생기거나 예쁜 멤버에 멋진 옷까지 더해 최상의 무대를 더한다. 당연히 가사도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현실을 잊게 하는 노래에서 현실에 대한 노래가 나올 리 있는가.

반대로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나는 가수다' 등 리얼리티 쇼를 통해 화제가 되는 가수들도 있다. 그들은 아이돌 가수들과 반대로 진정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리얼리티 쇼는 노래의 메시지를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리얼리티 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최고의 무대를 만든 뒤, 실력과 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하도록 만든다. 평가의 기준은 좋은 사운드와 뮤지션들의 가창력과 연주력 같은 부분들이다. 이른바 '명품 노래'들을 들으며 '귀가 호강'하는 느낌은 주지만, 지금의 현실에 대한 묘사를 하는 가사를 만나기는 어렵다.

개그맨들의 노래는 지금 가요계의 유행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낸다. 그들의 노래에는 아이돌도, 가창력 좋은 가수도 다루지 않는 요즘 현실의 자잘한 모습들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개그맨 가수들의 활약은 그들의 음악 이전에 예능 프로그램의 활약이 전제된 것이다. 만약 정형돈이 인기 예능인이 아니라 인디 힙합 뮤지션이었다면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가 그만큼 화제가 될 수 있었을까. 용감한 녀석들에 대한 관심 역시 '용감한 녀석들' 코너의 인기가 바탕이 됐다.

현실에 대한 세태 풍자는 이미 인디 뮤지션들이 꾸준히 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지금의 개그맨들처럼 큰 히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아이돌의 노래는 TV로 보고, 가창력 좋은 가수들의 노래도 TV 리얼리티 쇼로 본다. 그리고 현실을 풍자하는 노래도 TV의 예능인들을 통해 듣는다. 개그맨들이 새로운 감각의 노래들로 화제를 모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요즘에는 그 새로운 감각마저 TV로 확인하는 것 같아 아쉽다. **AF**



## 력서리 7성급 감옥에서 펼쳐지는 기막힌 동거, 장진의 코믹풍자 수다극 <허탕>

장진이 연극 <리턴 투 햄릿> <서툰 사람들>에 이어 세 번째 작품인 연극 <허탕>을 선보였다. <허탕>은 정재영과 신하균, 임원희 등 걸출한 연기파 배우들을 미리 선택했던 장진 연출의 초기작이다.

연극의 배경은 지상 최대의 력서리 7성급 감옥'이다.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이곳을 재현하기 위해 '소극장 무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원형무대를 도입했다. 객석 위의 흑백 스크린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치 무대에서는 연극이 허공에서는 영화가 펼쳐지는 듯한 오묘한 조화가 기존 소극장의 틀을 과감히 무너뜨렸다. 장진이기에 가능한 연극과 영상의 만남이 아닐까.

장진은 군생활을 하면서 <허탕>을 기획했다. 죄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무니없이 예쁘고 안락한 감옥. 원래부터 살고 있던 여유만한 고참 죄수와 막 들어온 의심 많은 신참 죄수 그리고 임신한 미스터리 여자 죄수의 기막힌 동거에 동참해 보자. 웃음을 자아내는 대목도 적지 않지만, 인생을 마치 안락한 감옥에 비유해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철학도 만날 수 있다.

- 기간 : 9월 2일까지
- 장소 : 서울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홈페이지 : <http://www.dsartcenter.co.kr>
- 가격 : 일반석/죄수석 3만 5천원



06월 15일 OPEN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기획 · 제작 | 문화창작집단 수다021747-5885

Preview

## 당신이 찍은 최고의 사진은 무엇입니까? “내일 찍을 예정입니다” <마크 리부> 사진전

인위적인 연출과 디지털 사진으로 인스턴트화된 현대의 사진 속에서 마크 리부의 아날로그 감성은 우리 일상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크 리부가 왕성히 활동했던 5~60년대의 작품을 비롯한 주요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재치와 묘한 긴장감이 담긴 마크 리부의 대표작 <에펠탑의 페인트공>과 반전평화시위의 상징 <꽃을 든 여인>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큰 사이즈로 제작됐다.

이번 전시는 모두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에펠탑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에펠탑의 페인트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평화롭고 낭만적이었던 파리 시민들의 일상과 행복을 담아낸 <파리의 사랑>, 피카소·비틀즈 등 이 시대 최고의 리더들을 담은 <시대의 목격자> 등을 디지털 사진기가 아닌 아날로그 사진기로만 담았다.

세상에 수많은 영상과 화려한 기법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이 마크 리부에게는 있었다. 우리를 모두의 마음 속에 있을 그 서정적인 감성들을 마주하고 나면 우리 주변의 작은 여유가 왠지 반갑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 기간 : 8월 5일까지
- 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홈페이지 : <http://www.marcriboud.co.kr>
- 가격 : 성인 1만 2천, 어린이 8천원



공군을 더 깊게 품을 수 있었던 기회  
자랑스럽고 멋진 아빠가 되게 해준 공군에게...

\*독자기고

놀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책마을

# Opinion

# 공군을 더 깊게 품을 수 있었던 기회



글. 중위 신동일 | 군사법원 심판부

2012년 5월 3일, 공군 군사법원 법원장님과 나를 포함한 심판부 군판사들은 군판사 소양교육을 위해 차에 올랐다. 이번의 군판사 소양교육은 우리 공군 군판사들의 '공군 이해하기'가 모토였다.

첫 행선지인 대구구치소를 거친 후 법원장님, 신동환 판사와 나는 군법교육을 위해 울산 방공포대로 출발했다. 올해 임관한 나는 포대 방문이 처음이었다. 포대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과, 저 멀리 울산 상공을 겨냥하고 있는 방공포의 모습은 언제 적기의 기습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 공군 장병들은 아랫동네와는 동떨어진 무인도 같은 이곳에서 우리 국민의 머리 위를 지키기 위해 자나 깨나 하늘만 쳐다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었다.

군법교육은 부서관, 병사순으로 진행됐다. 부서관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교육은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회식도 음주도 없이 남은 시간엔 체력단련을 주로 한다는 부서관들의 대답에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영공을 노릴지 모르는데, 음주며 음주운전이 웬말이란 말인가. 군법교육을 하러 간 우리는 오히려 항상 전쟁과 가까이 지내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군법교육 후 저녁을 먹고 난 우리는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을 향하여 출발했다. 울산에서 서산까지 약 380킬로미터의 이동은 정말 강행군이었지만, 먹고 싶은 것 못먹고, 자고 싶을 때 못자면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울산포대의 장병들을 떠올리면 마냥 불평할 수만은 없었다.

20비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 우리는 미리 와 있던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여 전투기 조종 시뮬레이션을 체험하였다. 살짝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은 조종석에 앉아서 온갖 눈금과 숫자들만 가득한 어두운 화면 속에서 활주로를 찾아서 착륙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임무였다. 하지만 웬걸, 내내 옆에서 조언해 주던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자마자 시뮬레이터는 야생마가 주인을 만난 듯 순종적이 되어 암전히 활주로를 찾아 착륙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고된 훈련과 비상대기를 거쳐야 비로소 한 명의 조종사가 탄생한다더니, 역시 명불허전이였다. 얼마 전 항생교육에서 가속도 적응 훈련을 받다가 20초를 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멀고도 험한 전투기 조종사의 길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이들간의 일정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은 출발할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공군' 군판사라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나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과 낮으로 고군분투하는 공군 장병들을 생각하면 나도 밤과 낮으로 노력하고 궁리하여 공군 내의 법적 정의를 세우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AF**

# 자랑스럽고 멋진

## 아빠가 되게 해준 공군에게...



글. 상사 김기수 | 제86항공전자정비창 유도무기정비팀

제86항공전자정비창 유도무기정비팀에 근무하는 김기수 상사입니다. 서산지역 가족초청 행사가 가슴에 큰 감동을 안기고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공연을 관람하며 환하게 웃는 아내, 이글루 앞에서 전투기를 보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군인인 아버지가 모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의 시간을 선사해준, 그래서 '자랑스럽고 멋진 아빠'가 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문서로 접했을 때 사실은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일도 바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짐짓 나서기가 망설여졌지만, 지난해 행사에 참여 못했던 아내가 서운해하던 기억에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늘 일 핑계로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여러모로 소홀하기만 했던 기억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기대했던 터라 행사 일주일 전부터 어린아이들이 소풍가기 전에 흥분하고 잠도 설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행사를 통해 아내와 아이들이 직접 제가 일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부대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근사한 식사에 공연까지 이어지자 시종 웃음이 입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행단 이글루에 대기하고 있는 KF-16을 견학하며 친절한 조종사 대위님의 설명과 함께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이 비행기가 하늘을 잘 날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자 가족들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행사 내내 한없이 웃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온종일 노느라 피곤했던 아이들은 이내 잠이 들고, 아내와 차 한 잔하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얼굴 마주하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며 낮에 느꼈던 즐거운 마음을 밤늦게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며 "여보 고생 많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당신 소중한 사람인 거 잘 아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들도 당신 위해 열심히 잘 할게요."라고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겪었지만 이날처럼 가족들과 즐겁고 의미 있게 지냈던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날 그렇게 웃고 맛있는 것을 먹고 다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령관님과 여러 관계관 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만 올려놓는 것으로 가족들 앞에서 훌륭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군수사 장병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런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승~! AF





김정운



마이클 샌델

## 놀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학생 시절에 잠시 몸 담았던 동아리에서 항상 '위기의식'을 강조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아리를 이끄는 이른바 '동아리 짱'으로서 틈만 나면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위기다, 선·후배들 사이에 유대감이 없어서 위기다, 동아리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위기다, 동아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위기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동아리가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선배의 영향 때문인지 그 이후로 동아리 짱을 맡는 선배들 역시 후배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배들의 리더십을 '위기의 리더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기'라는 이미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옆에서 볼 때 그런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물론이고 책임까지도 조직 구성원들에게 돌리는 리더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노는 만큼 성공한다』(김정운 저, 21세기북스, 2011)는 책을 읽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어떻게 놀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펼쳐든 책에서 뜻밖에도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선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부적응적

불안(maladaptive anxiety)'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에 '놀이'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저자는 이러한 부적응적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면 불안해지는 심리학적 질병을 없애야만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우리나라에 '정의' 돌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 저, 김선욱 감수, 안기순 역, 와이즈베리, 2012)이라는 신작을 통해 제목 그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놀이'도 이러한 경제성장의 논리에 의해 생겨난 문제점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노는 것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경제성장의 논리에 기가 눌러 놀기 위해 상관이나 조직의 눈치를 봐야 했고, 노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업신여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마을>가족 여러분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대로 놀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입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갑시다! **AF**

# 2012 July

Vol.409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5.1~2013.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July

Vol.409

P  
O  
S  
T  
C  
A  
R  
D

# 공군, 여호와 만나다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7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7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월간 「공군」 7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31일까지

1. 사담 후세인의 개인 경호를 위해 이라크 티크리트 지방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는?
2. 픽사 스튜디오의 열세 번째 작품이자, 고대 스코틀랜드의 던브로 왕국의 메리다 공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영화는 무엇인가?
3.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진행템포가 빠른 작품으로 왕위를 찬탈한 스코틀랜드의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은 무엇인가?

## 5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존 보이드 2. 도라농장 3. 판엠

퀴즈 당첨자 서울 관악구 최호성 ● 대구 달서구 장미정 ● 서울 노원구 이민수  
충남 천안시 김경태 ● 인천 남동구 이용운 ● 경기 가평군 차민홍

##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공군,  
영화를 만나다

